

7. 색깔과 맛과 소리

靑色(청색), 黃色(황색), 赤色(적색), 白色(백색), 黑色(흑색)으로

물건의 색깔을 정하며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으로

물건의 맛을 정하고

宮(궁)·商(상)·角(각)·徵(치)·羽(우)*로

물건의 소리를 정하였다. (『계몽편』 「수편」)

*宮(궁)·商(상)·角(각)·徵(치)·羽(우) : 옛날의 동아시아 음악이나 지금의 국악에도 쓰이는 다섯 가지 음

물질	나무	불	흙	쇠	물
계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색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방위	동	남	중앙	서	북
얼굴	눈	혀	입	코	귀
소리	각	치	궁	상	우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장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냄새	누린내	탄내	향내	비린내	썩은 내



우리 조상들이 사물을 이해했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에는 앞의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陰陽(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차갑고 부드럽고 움츠러드는 성격을 띤 음의 성질을 지닌 사물과 따뜻하고 강하고 뻗어나가는 성격을 띤 陽(양)의 성질을 지닌 사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남자·불·태양·여름·강함·남쪽 등은 양의 성질을 지녔고, 여자·물·겨울·부드러움·북쪽 등은 陰(음)의 성질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음과 양으로 분류해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의 음극과 양극, 수학에서 음수와 양수 등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지요. 우리 태극기에도 음양이 들어있는데 붉은색 문양은 양, 푸른색은 음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음양의 두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 너무 단순하여, 본문에 보이듯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것을 五行(오행)이라 불렀어요. 모든 사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던 것이지요. 앞쪽에 제시한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色]이나 소리나 맛이나 계절과 방위 등에서도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물은 꼭 다섯 가지로만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가령 소리나 냄새 등이 꼭 다섯 가지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분류방식은 옛 사람들이 사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과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분류방식을 알아두면 옛 고전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

1.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네 방향을 지키는 신령스런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앞 쪽에 나온 표를 보고 방향과 색깔을 맞춰 보세요.

사신	방향	색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2. 앞의 글에 등장하는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은 혀의 어느 부위에서 느낄 수 있는지 자료를 찾아 혀를 그리고 표시해 보세요.

3. 사물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없을까요? 빈칸에 표시 해 보세요.

방위				
얼굴				
계절				
맛				

4. 앞의 본문에서 옛사람들이 분홍색이나 녹색 또는 회색 같은 것은 왜 다섯 가지 색깔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푸를	누를	붉을	흰	검을	빛
한자	靑	黃	赤	白	黑	色
음	청	황	적	백	흑	색

2. 다음 설명에 관계되는 낱말의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시오.

<보기> ① 黃色 ② 靑白 ③ 白色 ④ 黑色

- 가. 검은색과 흰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나. 청군과 백군을 줄여서 쓰는 말 : ()
 다. 동아시아 인종의 색깔을 대체로 일컫는 말 : ()

3. 다음 □안에 들어갈 한자의 음을 써 보시오.

- 가. 靑出於藍(□출어람) :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는 말.
 나. 白衣從軍(□의종군) :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 군대를 따라 싸움터에 나감을 이르는 말.
 다. 黃口乳臭(□구유취) : 부리가 누런 새 새끼같이 아직은 어려서 입에서 젓비린내가 난다는 뜻으로, 남을 어리고 하잘것없이 깔보는 말

4. 다음 <보기>를 보고 우리나라 태극기에 들어 있는 색깔을 모두 골라 보시오. ()

<보기> ① 黃色 ② 靑色 ③ 白色 ④ 黑色 ⑤ 赤色



여우 누이

옛날 아들만 셋인 어떤 부자가 딸을 낳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었어요. 얼마 후 그 부자에게 귀여운 딸이 생겼어요.

그런데 몇 년 후부터 그 부잣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고 나면 소가 피를 흘린 채 한 마리씩 죽고 마는 거예요. 부자는 차례대로 아들들에게 밤중에 자지 말며 지키게 하였으나 졸음을 참지 못한 첫째와 둘째 아들은 그만 졸고 말았어요. 셋째 아들은 자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글썽 자정이 되자 누이동생이 방문을 스투르 열고, 마당에서 공중제비를 한 바퀴 넘더니 외양간으로 곧장 가서는 말의 엉덩이에 손을 푹 집어넣어 말의 간을 꺼내먹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셋째 아들은 본 그대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어린 여동생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어요. 쫓겨난 셋째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깊은 산골에 있는 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일도 도와주고 공부를 하면서 십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집에 가고 싶었어요. 주지스님께 고향에 한 번 가 보겠다고 하니 黄色과 赤色과 青色으로 된 병 세 개를 주면서 위급할 때 쓰라고 주었지요.

고향에 오니 다 쓰러져 가는 고향집에 누이 혼자만 살고 있었어요. 누이가 밥을 지어 준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누이의 치마 끝에 여우 꼬리가 아홉 개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모든 걸 눈치 채 셋째가 말을 타고 도망 오는데, 누이는 ‘히히 오라버니’ 하면서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黄色 병을 던지니 가시덤불이 생겨 누이를 가로막았는데, 그것마저 뚫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 이번에는 赤色 병을 던지니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래도 누이는 불길을 뚫고 따라왔지요. 마지막으로 青色 병을 던지니 큰 강물이 생겨 뒤 따라오던 누이는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